

국내 그린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타운홀 미팅 요약 내년부터 국내 그린산업 정책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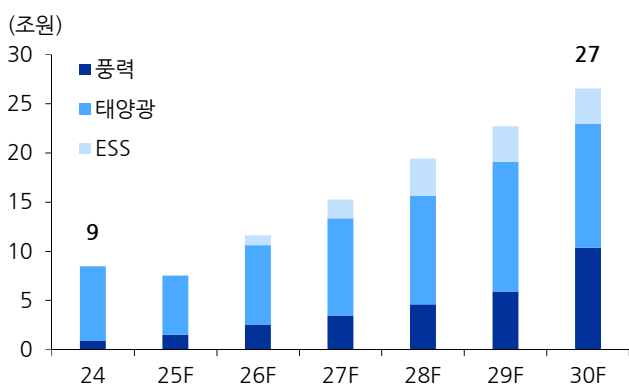
국내 그린산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산업 확대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 전기차, 배터리/BESS 등 관련 산업 규모가 2030년까지 최소 각 3배 이상 확대되면서 관련업체들 수혜 본격화 예상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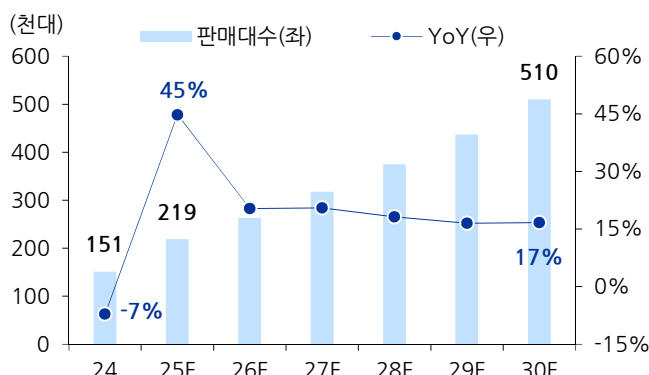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당사 주최로 금융투자사와 그린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관이 주관한 정책 타운홀 미팅 열려
- 태양광, 풍력, 전기차, BESS, 산업의 탈탄소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
- 1. 태양광: 1) 연간 설치량 현재 3GW에서 7~10GW 수준으로 확대 2) 영농형 태양광법, 이격거리 규제 완화 조만간 법제화 3) 공공기관, 햇빛 연금 관련 마을 태양광에는 국산 패널 사용 확대 위해 금융지원 우선 4)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 등에 R&D 확대
- 2. 풍력: 1) 풍력 현재 연간 설치량 100~300MW에서 2030년까지 연 1,200~2,000MW로 확대. 육상풍력 허가 절차 간소화 위해 행정적인 원스톱 샵 도입 2) 해상풍력은 내년부터 특별법 시행. 국방부와 협의에 집중. 망 접속료 부담 낮추고, 전기안전공사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등 논의. 발전단가 낮추기 위해 고정식 해상풍력부터 활성화
- 3. 전기차/BESS: 1) 2030년내에 신차 기준 전기차 판매비중 현재 14%수준에서 30% 이상 확대 위해 구매보조금 유지하고 내연기관차 전환 보조금 신설 2) 택시, 렌터카, 리스차 등 법인 사용 전기차 구매시 세제 혜택 논의 3)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도 전동화 4) 보조금이 국내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게 설계 5) 전국적인 BESS 보급 계획 수립. 국가 입찰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과 망 안정성 확보
- 4. 산업의 탈탄소: 1) 전력산업의 탈석탄 가속화. 국제 탈탄소동맹 가입. 203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20기 폐쇄 2) 철강업체들의 수소환원제철 데모 프로젝트(30만톤) 2030년까지 완료 예정 3) 그린, 퍼플 수소 생산에 정부 투자, 생산 보조금 지급 논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그린산업 전반의 정책 대폭 강화. 내년부터 실행 단계로 진입해서 국내 산업에 영향 커
-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 풍력, 태양광, 전력 인프라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 전기차/배터리/BESS 관련업체들 모두 국내 시장 확대에 인한 성장 본격화될 것

국내 그린 산업 시장 규모 예상치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전기차 판매 예상치



자료: 유진투자증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효과 2026년부터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 이후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차/BESS, 산업의 탈탄소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정책들이 부처에 따라 파편적으로 실행되었고, 탄소감축이라는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실행의 강도와 지속성이 낮았다. 하지만 이제 한 부처에서 공통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과거와 비교해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6 년은 국내 그린산업 전반이 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BESS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들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설치량 목표를 기존의 78GW에서 100GW로 확대할 계획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를 위해 1) 태양광은 현재 약 3GW의 연간 설치량이 7~10GW 수준까지 상향하고 2) 풍력은 육상과 해상풍력 합쳐서 연간 설치량을 현재의 100~300MW에서 1,200~2,000MW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도 원스톱삽 정책 도입해서 연간 600~1,000MW 수준으로 시장 확대할 의향이다. 또한 전기차는 신차 기준 판매 비중을 현재의 14% 수준에서 2030년내에 30% 이상으로 상향한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지하고,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플랜트(30만톤 규모)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퍼플수소의 생산에 대해 정부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그린산업 전반 성장기 진입

정책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2) 임기내의 달성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며 3) 정책 결정자들이 산업과 금융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행의 걸림돌인 세부 리스크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과 이후의 정책 행보는 국내 그린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당사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BESS, 배터리 등 대부분의 그린산업 국내 시장이 2024년 대비 2030년에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과거 정부에서 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실행 강도에 따라 시장의 크기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 풍력, 태양광, 전력인프라 밸류체인 관련업체들, 전기차/배터리/BESS 관련업체들 모두 국내 시장 확대에 의해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